



11면

임실군, 폐교부지 활용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음 10월 12일) 제362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교육부 주관 '2024년 시·도교육청 평가'

전북, 2년 연속 '최우수'

학교폭력 근절 노력·늘봄학교 지원 강화·디지털 교육혁신 등서 성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관련기사 16면>

1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주관 2024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4개 영역, 18개 지표를 모두 우수한 실적으로 통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17개 지표 중 16개를 통과했으나, 올해 평가에서는 18개 모든 지표에서 확연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전북 교육력이 향상됐음을 나타내는 실증적 성과다.

교육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개혁,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평가하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근절 노력, 늘봄학교 지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교육 경감 추진 노력, 직업 교육 경쟁력 강화 등의 지표에서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이 우수 정책 사례로 선정돼 별도의 특별 교부금도 받는다.

먼저, 학생 참여형 학교폭력 예방 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사

극과 역할극, 평화로운 학급문화 조성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부터 사안 처리 및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인 '늘봄우리'와, '전북생활교육 공간 체널'이 우수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이어 전북형 늘봄은 학교 인력의 연계를 강화해 늘봄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모두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 안에서는 오후 6시까지, 학교 밖에서는 오후 8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학교 밖 늘봄기관을 21개로 확대,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도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3,654명 중 3,361명이 늘봄에 참여하면서 2024년 늘봄학교 참여율이 전국 최고(92%)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역량 배양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교육청은 2023~2024년 초3~고3까지 스마트기기 보급을 완료했고,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에듀테크 연수도 마련해 지난해 1만7,401명, 올해 2만7,000명이 참여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에 과감히 투자해 전년 대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이 2.2%에 그쳤고, 사교육 참여율도 0.9%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의 주요 정책이 국가 정책과의 조화로운 추진을 통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내실 있게 실행해 우리 아이들의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은희 기자



조지포크 방문 140주년... 전라감영 접빈례

1884년 미국 외교관 조지포크의 전라감영 방문 140주년을 기념해 11일

전라감영에서 열린 접빈의례 재현행사에서 관찰사인 김광영 도지사

(사진 가운데)를 포함해 서거석 교육감,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우범기 전주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전북자치도, 소방 급식 환경 개선한다

내년 예산편성 통해... 도내 식수인원 50인 이상 소방관서에 집단급식소 운영

내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관서의 급식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8일 발표한 2025년 편성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소방본부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방관서 집단급식소 운영(8개소, 9억9000만원)' 사업이 최종 예산안에 포함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급식환경 개선이 시급했다"며, "최근 경기침체와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에서도 전북자치도의 우선과제로 선정해 속도감 있게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논란이 되었던 도내 식수인원 50인 이상 소방관서는 집단급식소 신고운영을 통해 조리사와 영양사의 전문적인 식단관리와 영양공급이 가능하게 됐으며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됐다.

조리인력 인건비까지 자체 부담해오던 도내 소방공무원들은 이번 변화가 소방기관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획기

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방법과 규모에 차이는 있으나 전국 대부분 광역시도에서 식단 운영비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한 소방공무원 정액급식비를 감안, 주부식비 지원예산을 확대하는 추세"라며, "자치도와 지방의회의 적극적 협조 아래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작지만 큰 발자국이 떴어졌다"고 평가했다.

24시간 상시대기와 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안정적인 급식 제공 환경을 갖추게 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 분석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은 "전북 소방공무원들의 급식환경 개선사업은 이제 시작이다"라며, "내년 개선 대상인 8개소 외 나머지 47개 안전센터와 119지역대 역시 인력과 주부식비 지원 방안을 확대 모색하는 등 우리도 실정에 맞는 개선 계획을 다듬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개발청, 관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자 공모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그동안 다각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한 결과,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2025년 2월 10일까지 민간사업시행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관광레저용지 중 공유수면 2.40㎢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총사업비는 2500억원 이상으로 관광레저산업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을 제시했다.

개발시설로는 관광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객 집객시설과 부대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등 연관 시설도 제안 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할 사업자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평가 후 최고 득점한 제안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만호 기자

'신속 복구'... 도, 호우 피해 도민 지원 '가속도'

태풍 플라산 간접영향 인한 피해 재정지원 확대

재난지원금 61여억원, 올해 안에 지급 완료 목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제14호 태풍 '플라산'의 간접 영향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연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복구계획은 제2회 추경 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농업·축산업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북 도내 평균 강수량은 153mm를 기록했으며, 특히 정수군 장수읍(243mm), 익산시 함라면(225mm) 등 일부 지역에서 폭우가 집중됐다. 이에 따라 도내 14

개 시군 전역에서 농작물 침수 등 총 2만9,633건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해 피해액은 약 62여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피해액의 약 8.8%에 해당하는 규모로, 인명 피해와 공공시설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사유시설 피해의 대부분은 농작물(6,435ha), 농경지(0.47ha), 주택 침수(3동) 등 농축산 분야로, 전체 피해액의 98%인 61여억원이 집중됐다.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복구 예산 61억원을 확정했으며, 지원금은 국비와 도비가 함께 투입된다. /이만호 기자

또한, 재난지원금과 농기계·생산 설비 지원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13개 시군(전주시 제외)에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며, 3,000만원 미만인 전주시는 자체 재원을 통해 지원금 지급이 이뤄진다.

전북자치도는 추경 예산 편성 후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피해 농가에 연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책으로, 정부의 한시적 정책에 따라 농기계와 생산설비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과 더불어 국제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18개 분야의 간접지원 서비스도 병행해 도민의 일상 복구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